



5면

전주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첫 삽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2월 9일 목요일 (음 1월 19일)

제3199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8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14개 지자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추진 '합심'

### 도·시군, 협약 체결... 새로운 전북 만들기 '의기투합'

#### 전북형 특례 발굴에 역량 집중... 도민설명회 등 계획

새로운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 2024년 1월 18일 출범을 앞두고 전북의 지역적·역사적·지리적 특성을 살려 새롭게 시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힘을 모았다.

전북도는 8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14개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북형 특례 발굴에 도·시·군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 전북형 특례 발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 비전 확산과 공무원 역량 강화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1월, 과 단위 '특별자치도추진단'을 조직해 정부부처·강원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수성·강점을 살리기 위한 전북형 특례 발굴을 시작했다.

또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시·군 전문가들이 연합한 '특례사업 발굴추진단'을 구성해 운영중이며, 3월 국무조정실에 구성되는 '전북자원과 위원회'와 연동하면서 전북형 특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도민 설명회, 전문가 토

론회 등을 통해 도민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시에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지적 정보 등 행정정보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내실있는 특례 정책 추진으로 도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며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협력해 나가자"고 하니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도, 교육부 RIS 신규·RISE 시범지역 공모 대응

## 지역 위기 극복 동력 활용

#### 올해 RIS 신규지역 선정시 사업 체계 지자체 주도 전환 계획 수립부터 성과관리까지 지자체 차원 참여·역할 확대

#### RISE 사업 핵심, 대학재정지원

#### 전담기구 지자체 소관

#### 비영리법인에 구축·운영

전북도는 교육부 RIS 신규지역 및 RISE 시범지역 선정을 통해 지역 및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023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RIS 사업은 3개 지역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오는 16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교육부에서 2월중에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대학과 협력을 통해 RIS 총괄대학인 전북대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해 기한 내에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교육부 RIS 공모 다음 날인 지난 3일 전북대와 관련 협의를 거쳐 6일부터 사업계획서 작성에 들어갔다.

RIS 신규지역으로 선정되면 6월까지 약 3개월 간 공모 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교육부와 지자체, 대학이 공동 설계·조정(Co-Design)을 거쳐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게 되며, 7월에 관련 협약을 맺은 후 앞으로 5년간 2,145억원(국비 1,500, 지방비 645)이 투입된다.

올해 RIS 사업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사업 체계가 대학 중심에서 지자체 주도로 전환된 점이다. 기존의 RIS 사업이 대학 위주로 추진돼 지자체의 의견 반영이 제한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성과관리까지 지자체의 참여와 역할이 확대된다.

특히, RIS 사업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총괄운영센터를 지자체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40억씩 3개 지역을 선정하는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을 상반기 중 공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RIS와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시범 지역을 선정한다.

올해 비수도권 5개 시도를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24년까지 시범 운영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21일까지 RISE 시범지역 신청서'를 접수 받아 심사를 통해 3월 초 선정지역을 발표한다.

RISE 사업의 핵심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전담기구를 지자체 소관 비영리법인(설립 또는 지정)에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시도별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담기구(비영리법인, 가칭 RISE센터)에 △RIS(지역혁신사업) △LINC 3.0(산학 협력) △LIFE(대학 평생교육) △HIVE(전문 직업교육) △지방대 활성화 사업 등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5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통합해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RISE 체계를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지원 사업 예산의 50% 이상(2조원+)의 배분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선정 예정인 '글로벌 대학' 지정 시, RISE 시범지역을 우대할 예정이다. 지역발전 선도하고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갖춘 '글로벌대학'은 2023년 10개 내외로 시작해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를 지정·육성할 계획이다. 지정 대학에는 5년간 학교당 1,000여원을 지원하는 등 중앙부처·지자체의 집중적인 재정 투자가 이뤄진다.

내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변화된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해 RIS 신규 및 RISE 시범지역에 선정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지자체와 대학 연계를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발전 및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도, 아·태 마스터스 대비 식품·숙박업소 위생안전관리 점검

### 1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15개반 편성 총 934곳

####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보관 등이 주 점검 내용

전북도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대비 식품·숙박업소 위생관리 및 친절서비스 조성을 위해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도내 대표 식품·숙박업소와 경기장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전북도와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 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15개반 420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총 5주간 식품업소 620개소, 숙박업소 314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업소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법적 이행 여부 점검 △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 △욕실 위생관리 준수 여부 △숙박업소 요금 인상 자제 및 요금표 비치 여부 등이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의료관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기간 동안 전라북도를 찾아주시는 선수단 및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업소의 친절 서비스 제공과 안전성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대회종료 시까지 위생 취약시설 지도 점검 등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회 기간 중에는 식품·숙박 관련 민원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해 도 및 시·군별 상황반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세요.

무주군의회의 또 다른 이름

# 희망의회!

지도자는 희망을 파는 상인!  
정치는 다음세대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희망을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